

‘당당한 노화’로

미래 사회 새로운 비전 만든다

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장수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장수라는 용어를 단순한 연령적,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계층의 출현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새롭게 도출되는 장수문화란 종래의 연령적 특수계층인 고령자 중심의 노인문화라는 개념이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인 인간들이 남녀노소 모두 함께 어우러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관념 및 규범체계가 아닐까? <편집자>

글 | 박상철 _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소장 scpark@snu.ac.kr

200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2005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 연령은 35.0세로, 2000년에 비해 3세가 많아졌으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436만 명이었다. 우리나라 인구의 청장년 비중은 아직 71.6%에 이르지만 점차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료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자가 증가하는 반면, 여성의 취업률 증가, 만혼 등으로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저하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 패턴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가속시켜 급박한 사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고령화 대책은 수혜복지를 우선으로

사회 고령화는 일반 노동의 측면에서 기초 노동력의 부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이민자 유입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독거노인의 급증과 특히 여성노인의 증가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를 예견할 수 있다.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는 세금납부자의 감소와 세금 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가 세수의 변화가 예상되며, 국방의 측면에서도 국방자원의 부족이 문제가 될 것이다. 기업에서도 인력 확보를 위한 정년 개념의 재정립과 임금 피크제 또는 호봉제의 폐지와 직무제의 개발과 같은 새로운 경영기법의 대두가 필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국가 연금, 세금정책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노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평균수명이 30~40대였던 시절 60대 이상의 노인은 사회적으로 희소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충분한 부양 잠재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회적으로 생산적 주체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령층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고령인의 희소성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경제적 피부양자로서의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대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노인층은 과거의 노인에게 제공되었던 효를 바탕으로 한 공경은 기대할 수도 없게 되어, 이로 인한 문화적 심리적 충격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장유유서 또는 효 사상에 의한 노인공경의 문화가 변화되면서 가족은 물론 일반 사회에서의 노소간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아직 강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위하여 정부·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조치들이 이미 추진·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입법조치 사항들을 보면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법으로는 생활보호법, 노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사회

복지 공동 모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통하여 노인의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 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취약계층노인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경제와 산업, 고령 친화적 사업의 육성 등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국가정책은 기본적으로 고령자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 정책으로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여성, 저소득층 등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령사회 대비 국가정책의 기초가 고령자를 장애자·유약자와 동일 범주에 포함시켜 고령자층을 복지수혜의 대상으로서만 인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나라는 아직 고령자와 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령인층을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삶의 질과 행복지수는 고령사회의 핵심

삶의 질 문제가 고령사회를 맞아 새롭게 대두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물, 물리, 화학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환경오염, 안전사고, 재해 등으로 인한 비용이 증대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정보화, 탈산업화, 네트워크형 기업으로의 전환, 개별 국가경제에서 지구촌 경제화로의 전환 등 사회경제적 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의 윤리 및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서 욕구 기대치가 크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삶의 질과 행복지수라는 개념으로 판정하였을 때 단순한 경제적 수준이나 건강상의 수준만이 아닌 환경 안전은 물론 구성원의 사회관계와 문화적 배경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 고령자의 경우는 기본적인 건강 재정상의 문제점도 크지만, 퇴직 또는 문화



서울 마포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대한노인회 주최로 열린 동아시아지역 고령화 전문가 세미나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의 고령화 전문가들이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06년 10월 9일(사진제공=연합뉴스)

적 단절에 따른 사회적 고립에 의한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고령자의 경우 청장년층에 비하여 삶의 질이 크게 훼손되고 행복지수가 낮을 것은 당연하게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여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 유지라는 새로운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스트렐러, '노화의 4원칙' 통해 노화현상 정의

노화라는 기본적인 생명현상은 개체적 수준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기능적 저하와 형태적 변화에 의한 판별은 쉽지만 이를 세포 수준 또는 분자수준에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보니 노화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 가지의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 어떠한 학설도 정설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설들이 노화현상의 부분적 측면에 대하여 설명하는 양상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화학설 중에는 노화현상에 대하여 유전자·세포·조직·개체의 각각 다른 수준에서 설명하거나, 노화 생명체의 기능적 측면이나 형태적 측면에 국한하여 설명하기도 하고, 생물체의 종에 따른 차이를 강조하는 등 제한적이어서 노화현상 전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결정론적 지견과 환경적 요인에 의한 누적적 손상효과에 의한 지견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으나, 이러한 고정된 개념으로는 노화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기에 크게 부족하다.

여러 복잡한 가설들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일반적인 노화현상은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스트렐러는 노화를, 첫째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초래되는 현상이며, 둘째 생체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변화이며, 셋째 생명체 고유의 내재적 변화에 따라 초래되는 현상이며, 넷째 노화에 따른 변화는 대부분 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형태적 변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스트렐러의 정의는 이후 노화의 4원칙으로 널리 통용되었으며, 학계에서 수용해 온 노화에 대한 기본 이론의 배경이 되었다. 스트렐러의 4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돌이킬 수 없는 기능저하와 형태변화가 동반된 변화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노화 현상은 필연성과 비가역성을 바탕으로 하는 결정론적인 시각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노화의 고식적 개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 한 노화에 대한 대응 방안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스트렐러의 기본 가설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분

석 비판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노화는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한 적응 결과

노화가 거론되면 무엇보다도 죽음과의 관계를 연상하게 된다. 노화는 숙명적인 과정에 따라 죽음에 이르는 전 단계로 인식되었고, 그 결과 노화동물·노화세포는 외부 독성 자극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젊은 동물이나 세포보다 손상을 많이 받고 쉽게 죽을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늙으면 죽는다'라는 명제를 검정해 보자. 우선 이 명제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은 시간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생명체 존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시간성인데 이러한 개념이 배제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명제를 '노화 세포 또는 개체가 젊은 세포 또는 개체보다 더 잘 죽는다'로 바꾸어 본다.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시험관내 및 동물실험을 수행하였다. 인체유래 섬유아세포를 계대 배양하면 세포노화가 초래된다. 이들 세포에 자외선이나 강한 화학물질을 투여하면 젊은 세포들은 쉽게 세포사멸이 유도되는데 반하여, 노화세포는 강한 저항능을 나타내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세포 수준뿐 아니라 개체수준에서 비교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젊은 동물과 늙은 동물을 대상으로 DNA 손상유도물질을 복강에 투여한 다음 조직에서의 세포사멸유도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젊은 동물에서는 세포사멸이 왕성하게 유도된 반면 늙은 동물에서는 세포사멸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노화세포나 개체가 외부 자극에 대하여 젊은 세포나 개체들보다 오히려 강한 저항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노화현상의 생물학적 의의가 숙명적인 과정에 의한 죽음의 전 단계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생존을 위한 환경에 대한 적응적 변화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화 현상이 환경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한 적응적 변화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노화 현상은 생명체가 외적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고 적응함으로써 생존하기 위하여 변화되는 자기 보호적 변화이지 불가피하게 숙명적으로 정하여진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물학적 새로운 발견들을 통하여 노화에 대한 근원적인 부정적 퇴행적 시각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늙으면 죽는다는, 또는 죽어야 한다는 명제를 생명체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오히려 살아 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노화현상이 초래됨을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첫번째 제기한 명제인 '늙으면 죽는다' 라는 결정론적 시각은 '노화현상의 본질은 생명체의 살아 남기 위한 적응의 결과' 라는 적응론적 시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비가역적이고 불가피하지 않은 노화 변화

노화세포는 세포사멸유도에 대한 저항성과 더불어 성장인자에 대한 반응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세포가 늙어지면 성장인자를 처리 하여도 세포증식이 유도되지 않는다는 특성은 노화현상의 비가역성을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노화세포의 기능저하, 특히 성장인자 반응저하 요인으로 새로운 지견이 제안되었다. 세포막에 위치하는 카베올라 구조의 주성분인 카베올린은 노화에 따라 증가됨으로써 이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각종 신호수용체의 기능을 제어하여 전반적인 신호전달능 저하가 초래되며, 또한 세포막 수용체 의존성 엔도사이토시스의 또다른 주역인 클라트린 시스템에서는 암피피신이라는 인자가 노화에 따라 소실됨에 따라 성장인자들에 의한 세포내 신호전달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함이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화세포의 카베올린 저하를 유도하거나 암피피신을 주입하여 보충하여 주었을 때 노화세포의 기

능이 회복되고 형태적 변형도 수복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그 동안 노화세포의 성장인자 반응저하가 비가역적인 불가피한 보편적 현상으로 인식되어 왔던 개념을 바꾸어야 함을 가리키고 있다. 노화세포 기능저하의 수복 가능성은 세포의 노화가 환경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생존수단으로 유도되었다는 시각에서 더욱 나아가 노화세포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능동적 증식 또는 기능회복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생명체의 생태는 단순한 생존전략을 위한 노화현상이 아니라, 노화세포도 변형을 추구할 수 있는 당당한 변화가 유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실험실적 연구뿐 아니라 인간의 노화종적관찰연구를 통해서도 분명해지고 있다. 즉 인간의 연령증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생리기능이 저하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별로 차이가 현저하며 개인별로 노력에 따라 기능이 회복되는 예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 점은 노화에 대한 결정론적인 시각을 벗어나 각 개체의 능동적인 대처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두번째 명제는 수정되어 '노화에 따른 기능저하 및 형태변화는 비가역적이거나 불가피하지 않다' 라고 바뀌어야 한다.

서울 관악구청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노인 일자리 수업 시연회'에 참가한 고령의 문화 전문가들이 전통탈·부채 만들기를 시연하고 있다. 구청측은 문화·예절·자연체험학습·외국어 등에 능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관내 장학사·어린이집 원장·초·중학교 교사 등을 초청했다. 2005년 2월 22일(사진제공=연합뉴스)



노화 현상은 차별성이 강하다

노화가 보편적인 생명현상이라는 명제도 시간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면 개인별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노화종적관찰연구를 통하여 보았을 때, 노화의 정도가 개인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만 각 개개인간에도 장기별로 노화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은 노화현상의 결정론적 보편성에 큰 의문을 제기해주고 있다.

실제로 백세인으로 대표되는 초장수인들을 조사하여 보면 이러한 인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노화종적관찰연구에서 예견되는 연령증가에 따른 형태 변화, 기능저하의 패턴이 초장수인들에게서는 전연 다르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백세인의 건강상태를 볼 때 일반적인 노인들의 추세와는 달리 매우 건강한 패턴을 보이며, 백세인의 숫자도 지역적으로 또는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예를 들면 호남, 제주 지역은 여성 장수도가 높고, 영동 및 영남북부 지방은 남성 장수도가 높다는 사실은 환경과 문화의 차이가 장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장수에 따른 신체적·생리적 기능의 변화를 비교하여 보면 여성은 지속적으로 연령증가에 따라 신체, 생리 기능이 저하 감소되는 패턴이 분명하나 남성의 경우에는 크게 변화되지 않는 양상을 보여주어 문화적 일상 생활패턴의 차이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시 한 번 노화현상의 적응적 특성을 강조해 주고 있으며, 노화의 보편적 원리보다 차별적 특성이 매우 강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성에는 문화적 환경과 생태적 환경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세번째 명제인 '노화는 보편적이다' 라는 개념을 '노화는 차별성이 강하다' 라는 개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장수인자를 밝히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장수인들의 생활패턴과 식생활이라는 것, 심리 성격적 차이와 같이 장수인의 개체적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병행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수 요인으로서의 공통적인 특성을 도출하기는 더욱 어렵다. 최근 장수인들의 개체적 특성과 더불어 장수인들이 살아온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 의한 장수도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52세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77세에 이르러 반세기도 못되어 국민의 수명이 25세나 증가되었다는 사실은 사회 문화적 발전이라는 요인이 인간의 장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간의 노화와 장수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

인의 유전적 특성이나 생활패턴의 차이로 대표되는 개체성과 사회 문화적 요인과 지역생태적 특성으로 대표되는 공공성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노화의 새로운 개념과 인식 전환

노화현상은 세포의 계대에 따라 또는 연령증가에 따라 나타나지만, 이러한 시간적 요인뿐만 아니라 공간적 요인인 물리학적·화학적·생물학적 자극에 의하여서도 손쉽게 유도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자극에 의하여 유도되는 이러한 노화현상은 스트레스유도 노화촉진현상이라고 구별되기도 하나, 적어도 외견상 이러한 노화현상은 본질적인 생체 고유의 노화현상과 큰 차이가 없다. 노화현상이 공간적 인자에 의하여서도 유도될 수 있다는 사실은 노화가 환경적 또는 생태적 요소에 의하여 영향 받을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서든지 노화현상이 유도된 경우 초래되는 여러 가지 분자적 변화현상을 유전자 칩이나 프로테오믹스 등의 최신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노화 유도에 따라 세포내의 대사계, 신호전달계, 스트레스반응계를 비롯한 여러 반응 시스템과 더불어 형태를 조율하는 세포골격 구조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반드시 노화에 의하여서만 유도된다고 국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의하여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보편적 반응성 시스템의 산물이다. 더욱 이러한 반응성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가변적이고 적응적인 생체장치들이기 때문에 노화현상이란 시간 경과에 따른 생체의 숙명적 변화라기보다는 시공간적 외적 요인에 따른 반응적 적응현상의 일환임이 분명해지고 있으므로 노화현상은 생명체의 생존을 위한 기본 현상의 일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노화현상을 세포가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가변적으로, 그리고 적응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초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노화에 따라 세포내에 초래되는 다양한 변화 양상을 총괄하여 '노화장(老化場)'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세포막내에서 이루어지는 노화장의 변화는 세포를 외적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응해가는 과정이며, 환경요건의 변동에 따라 순응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안해주고 있다. 이러한 추론은 세포나 생명체의 노화에 주변의 기질의 영향, 그리고 환경의 조건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종래 노화학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노화 현상의 종

간의 차이, 개체간의 차이 및 개체내에서의 장기나 조직간의 노화 속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노화현상에 대하여 필자는 새로운 가설인 '노화대 문설(老化大門設)'을 제안하였다.

이와같은 생물학적 연구 성과는 노화라는 개념을 본질적으로 재고할 때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세포 수준에서는 노화현상이 수복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안되었고, 노화현상이 부득이한 프로그램에 의한 불가피한 반응이 아니라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수단으로 이해됨에 따라 새로운 진정한 노화 제어의 방법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노화현상이 종래의 수동적, 비생산적, 비효율적, 자포자기적 상황에서 이제는 능동적, 생산적, 효율적, 자기 선택적인 변화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고령인의 경우도 단순히 연령의 증가라는 이유로 개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리라는 통념을 배제하고, 얼마든지 인위적 노력에 의하여 생체기능 유지가 가능함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기능적 장수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노화 대응 방안은 운명 아닌 선택

노화에 대한 비가역적 결정론적 시각에서 볼 때, 노화현상이 불가피하고 비가역적이며 이미 기능적·형태적으로 변질되고 저하되었다면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이미 변화된 유전자, 세포, 조직, 장기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응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노화에 대한 대응 방법은 이와 같은 바꾸기 원칙에 따라 항노화 요법이라는 미명하에 임상적으로 유전자요법, 줄기세포요법, 조직패치 이용, 인공장기 또는 장기이식법 등이 개발되어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은 방법론적으로도 아직 온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정론적 사고개념을 벗어나 노화 현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노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전면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노화현상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적응적·반응적 대응의 결과로 초래되는 현상이며 기능적 측면에서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규명되면서, 노화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바꾸기가 아닌 '고치기 원칙'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노화된 세포나 조직 또는 장기를 무조건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생물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

면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의 노인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이에 '당당한 노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한다. 당당한 노화의 본질은 기존에 거론되어왔던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하면서도 고령자의 위상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에서 차별화된다. '성공적 노화'가 결과적 가치에 보다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면, '생산적 노화'는 경제적 가치에 보다 중점을 두고 노화과정을 평가한다. 그러나 '당당한 노화'는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당당한 노화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문제로서는 새로운 개념의 장수문화가 필요하고 이를 계기로 고령자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실천의 문제로서는 지역사회가 이에 대응하여 대비하는 일도 필요하며, 장수문화의 제반 사안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담긴 '당당한 노화' 정착되어야

고령사회의 사회적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고령인 스스로의 부정적 관점에서 비롯된다. 정책적으로는 고령자에 대한 수혜 복지 정책 위주로만 입안이 되고 있어 고령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기본적으로 노화에 대하여 결정론적이고 운명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개념은 '당당한 노화'다. 당당한 노화는 다른 어떠한 조건보다도 고령자의 현재 모습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차별 없이, 영역에 제한 없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구축하고 기존의 효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웃관계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고령사회를 맞아 급증하는 고령층인구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삶의 터전인 기업이나 지역사회가 구성원에 대한 제3세대 대비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장수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의대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한국노화학회 회장, 국제노화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